

닭고기 산업, 이대로는 안된다

사료 분야의 역할 개선

육계산업의 구조적인 특성 중에 계열화업은 필연적으로 생산비 연계 구조로 되어 있다. 한 분야의 생산비 증가는 반드시 다음 단계에 더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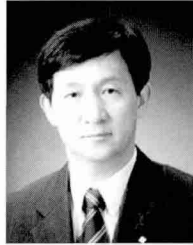
특히 육계업은 1차 산업의 특성인 병아리 부화와 사육에서 중요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시에 2차 산업인 도계, 가공 작업의 생산성이 3차 산업의 유통과 외식업 전반에 영향을 준다.

한 마리의 병아리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8단계 작업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닭고기의 품질과 수율을 좌우하는 사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계열주체에서 모든 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면 어느 정도 희망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외식업이 완벽하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면 거꾸로 발상을 통해 단계별 마진폭을 가지고 하위 단계의 손익을 흡수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1, 2, 3차 산업의 특성을 각 단계의 주체자들이 공유하거나 상호 견제하는 현재의 산업구조상 생산자들이 절대 불리한 구조가 안타깝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중요 공통 변수로서 사료도 포함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큰 변수



이 상 희 대표
이삭축산

로 떠오르는 것부터 개선하자는 시각으로 사료 분야의 역할을 개선하고자 제안해 본다.

1. 물류비용 개선

국내 전 산업이 고유가의 몸살을 앓고 있다. 석유 파동이나 다름없는 현재 환율 문제까지 겹쳐 수입분야인 사료와 육계업계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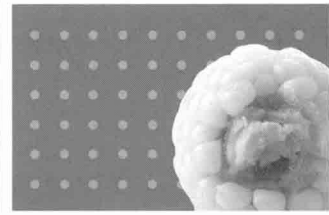
우선 사료 회사 간에 물류비 개선 노력을 제안한다. 상호 멀리 있는 회사 간에 서로 협력하여 상대방 제품을 나눠 생산해 주어 장거리 이동의 물류비를 낮추기를 바란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방법을 시행해 오고 있다.

2. 하치장 비용 개선

장거리에 있는 하치장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가동률이 떨어지는 업체는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경쟁사와 협력하여 운영비를 낮출 수도 있겠다.

3. 대형 벌크차량 운영

대부분의 육계 농장이 벌크 사료를 사용하므로 무포장 사료의 크기도 유럽처럼 대형화



늦은 바는 있지만 일본이나 유럽, 특히 네덜란드처럼 정부와 산업체간에 곡물가 급등에 대비한 안정 기금을 만들 때가 되었다.

축산 농장으로 정부자금이 직접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산업체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하고 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농장에서도 화장을 서둘러야겠다.

4. 사료 영양수준 강화

곡물가의 상승과 환율 압박으로 인해 사료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농장에서는 생산지수가 낮아지면 품질을 의심하곤 한다. 하절기 고온 스트레스로 섭취량 저하는 생산성 저하임을 감안하여 계절적으로 품질 보강이 필요한 때이다.

높은 품질과 우수한 원료를 더 많이 사용하여 사료요구율 개선이 가장 큰 해결책임을 농장과 사료업체 간에 공유해야 한다.

5. 사료 곡물 안정 기금의 설립

늦은 바는 있지만 일본이나 유럽, 특히 네덜란드처럼 정부와 산업체간에 곡물가 급등에 대비한 안정 기금을 만들 때가 되었다.

축산 농장으로 정부자금이 직접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산업체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환율 방어는 정부의 첫 번째 기능인데 수출업체를 보호하고 경제 성장률 수치에 너무 연연하기보다 수출입 산업 양면의 균형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6. 사료가 고공 행진에 대비할 방법

전 세계적인 곡물가 상승은 석유의 자원화와 곡물 자원화가 맞물려 필연적으로 수년간 계속 높게 형성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육계 생산비의 증가는 바로 협회 회원사와 사육 농가 모두에게 대단한 위협이다. 산업체 공동으로 사료 대금에 대한 건전한 결제 방식을 택하여 여신 증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사료업체와 사육농장, 계열업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